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김준연**

목 차

1. 서언
2.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 선정과 분석
 - 2.1 명편 선정 자료
 - 2.2 명편 선정 내역
 - 2.3 N-gram 분석
3. 결어

국문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중국 고전 사랑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감정의 기반과 문학적 특징을 조명한 것이다. 중국 고전 사랑시는 주로 당송대에 창작된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며, '그리움'과 '괴로움'이라는 주제 표현이 두드러진다. 본 논문은 N-gram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사랑시의 감정적 흐름과 주제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랑시를 아문학과 속문학으로 나눠 각 계층의 문학적 표현 방식을 비교했으며,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통해 당오대 시기의 작품들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디지털 분석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중국 고전 사랑시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 고전 사랑시, 당송대, 디지털 인문학, 토픽 모델링, 유사도 분석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1965).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서언

사랑시¹⁾는 보편적이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다루기에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일부라 할 중국 고전 사랑시는 ‘연애’의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삶과 이별, 그리움과 아쉬움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적 시간과 방대한 작품 수에 따른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중국 전통 시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사랑시 439편을 대상으로 N-Gram 분석과 토픽 모델링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랑시에서 다뤄지는 주요 주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정서적 특징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의 확대에 의해 논점이 지나치게 분산되지 않도록 본고에서는 중국 사랑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그리움’과 ‘괴로움’이라는 직관적 전제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중국 고전 사랑시의 주선율이 당대와 송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이후 중국문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당송대 사랑시가 사랑과 관련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전통 시대 시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그것이 후대까지 지속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더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사랑시를 아문학과 속문학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문학 장르 또는 향유 계층에 따라 사랑에 대한 인식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탐구하고자 한다.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랑시’라는 표현은 전통적 용어라 할 ‘애정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간의 七情을 ‘喜怒哀樂愛惡欲’이라 할 때, 이들 가운데 하나인 ‘기쁨(喜)’이나 ‘슬픔(哀)’처럼 적절한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도 굳이 ‘사랑’ 대신 ‘애정’이라는 한자어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한다. ‘애정시’ 외에 ‘艷情詩’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이 역시 사랑시의 범주에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면 충분할 것이다. ‘애정시’의 개념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배경진의 <艷情詩와 晚唐 艷情詩의 여성형상 -혼용된 체제 속에서의 문학적 분석->(《한중언어문화연구》 제84집, 2024)을 참고.

본고에서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인문학은 컴퓨터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인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학문 분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질적 연구 위주의 전통적 인문학이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통시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양적 연구의 일종이라 할 디지털 인문학은 이를 데이터화하여 대규모 분석으로 질적 연구를 보조한다. 예컨대 문학작품의 주제나 감정의 변화를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기법으로 분석하거나, 텍스트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해 인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등이 그러하다. 이런 까닭에 최근 디지털 인문학이 방대한 자료를 탐색해 인문학적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접근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²⁾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컴퓨터 기반 텍스트 분석 도구들이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은 전통적 연구 방법과 공존하는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문학 작품의 주제와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고전문학은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주제를 담고 있는 까닭에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양적 연구에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퍼스 분석 도구와 파이썬(Python) 코딩이 보편화되면서 정량적 분석이 점차 수월해지고 있다.³⁾ 이에 본고는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을 활용해 중국 고전 사랑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고전 사랑시의 다양한 감정과 통시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이들 시가 어떻게 중국 고전문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나아가 고전 사랑시가 ‘공감’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와 문화에서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이 이러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Martin Paul Eve, *The Digital Humanities and Literary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p.1-2

3) 이와 같은 일련의 추세에 대해서는 줄고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중국문학》 제106집, 2021)을 참고.

2.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 선정과 분석

사랑시의 명편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중국 문학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이는 사랑시로부터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감정 표현 방식 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명편 선정 작업을 토대로 그 결과를 디지털 인문학적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다.

2.1 명편 선정 자료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사랑시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게 분류한 사랑시 가운데 또 어떤 작품이 명편인지 판단하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또는 감정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여러 사랑시 선집을 두루 참고해 2권 이상의 선집에서 사랑시 명편으로 선정한 시편을 모아 최소한도의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필자가 선정 자료로 삼은 사랑시 선집 7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佐藤 保	中國古典詩聚花	尚学圖書出版社	1985
徐樞宗 黃雲生	古代情詩類析	廣西人民出版社	1987
成志偉 외 2인	中國愛情詩詞曲賦鑑賞辭典	重慶出版社	1994
萬木春 외 2인	悠悠愛河—經典情詩三百首	旅遊教育出版社	1998
朱代璁	中國古典愛情詩歌	學古房	2006
張超	經典情詩賞析	線裝書局	2007
邱勝陳彬	古典愛情詩詞300首	金盾出版社	2007

[표 1] 사랑시 선집 7종

이상의 문헌은 필자가 현 시점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망라한 것일 뿐, 사랑시 선집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더 좋은 자료를 발견하면 그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사랑시 명편 목록을 수정, 증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랑시 선집 일부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특정 시대에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해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시라는 장르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까닭에 한정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문학적, 감정적 특징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2 명편 선정 내역

앞에서 소개한 선정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 2종 이상의 문헌에 중복 수록된 작품을 집계하여 모두 439수를 명편으로 선정했다.⁴⁾ 이렇게 명편으로 선정한 439수의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선진	양한	위진	남북조	당오대	송대	금원대	명대	청대
26	29	10	37	161	88	20	2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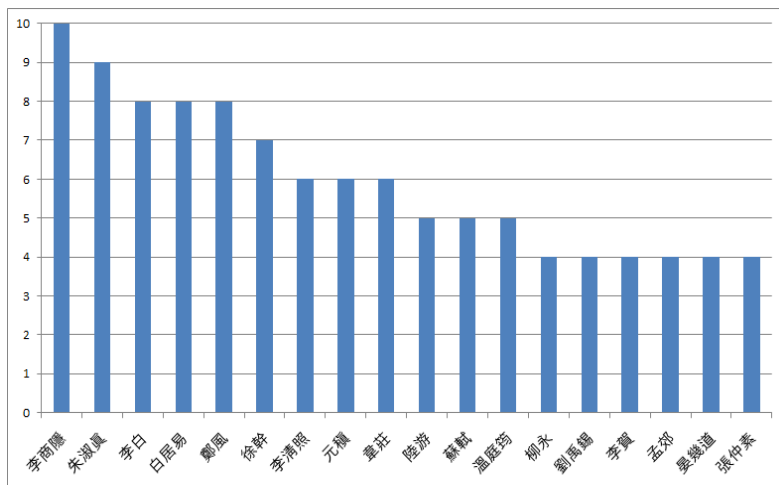
[표 2] 사랑시 명편의 시대별 분포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오대(618-960)와 송대(960-1279)의 명편이 각각 161수와 88수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창작된 사랑시는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담아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선정된 명편들은 그 분포가 시대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전체로 중국 고전 사랑시의

4) 439편의 사랑시 목록은 본고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어느 한 선집에만 수록되어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559수를 포함하면, 7종의 선집에서 다룬 사랑시는 총 998수에 이른다.

계보를 이루는 대표작으로 인정할 만하다. 특히 당대 두보(杜甫)와 이상은(李商隱)의 시는 사랑시 중에서도 핵심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의 시는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본고에서는 이 명편들을 통해 중국 고전 사랑시가 표현하는 감정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이를 디지털 분석 도구를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 고전 사랑시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중국문학사에서 이 당송(唐宋) 시기는 고전시가 가장 번성한 황금기였던 만큼 모든 주제의 시가 활발히 창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학사적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당송 시기의 사랑시는 특히 후대의 독자들로부터 애송되었다고 할 만하다. 명편에 가장 많은 시가 선록된 ‘사랑시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⁵⁾



[그림 11 명편 선록 작품 수가 많은 '사랑시인']

당나라 시인 이상은이 명편 목록에 10수를 올린 것으로부터 그가 가장 ‘사

5) 명편에 한 수 이상의 시가 선록된 시인은 모두 247명이다.

랑 받는’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시인 주숙진(朱淑眞), 그리고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과 백거이(白居易)가 뒤를 이었고, 개별 시인의 작품은 아니지만 《시경(詩經)》의 ‘정풍(鄭風, 정 지역의 민가)’⁶⁾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4수 이상의 시가 선록된 17인의 시인 가운데 당·오대 시인이 10명⁷⁾, 송대 시인이 6명⁸⁾으로, 당송(唐宋) 시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 사랑시의 정점은 당송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이제 개별 사랑시 작품으로 눈을 돌려, 거의 모든 사랑시 선집에서 빼놓지 않고 수록한 명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수	시인	시제	종수	시인	시제
7	杜甫	月夜	6	崔顥	長干曲
	李商隱	無題(相見)		白居易	長恨歌
6	무명씨	涉江采芙蓉		劉禹錫	竹枝詞
	王昌齡	閨怨		李商隱	夜雨寄內 ⁹⁾
	李白	春思		金昌緒	春怨
		長干行		陳玉蘭	寄夫
杜甫	新婚別				

[표 3] 다수의 사랑시 선집에 수록된 작품 일람

6종 이상의 선집에서 사랑시 명편으로 선정한 시편 가운데 작자 미상의 한 나라 시 <강을 건너며 연꽃을 따다 涉江采芙蓉>를 제외한 모든 시편이 당나라 시인의 작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사랑시 창작의 중심에 당나라 시인

6) 공자(孔子)는 “정 지역의 민가가 아정한 음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한다(惡鄭聲之亂雅樂也)”고 말한 바 있다.(《論語陽貨》) 공자는 정풍에 포함된 사랑시가 다소 노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듯하다.

7) 李商隱, 李白, 白居易, 元稹, 韋莊, 溫庭筠, 劉禹錫, 李賀, 孟郊, 張仲素.

8) 朱淑眞, 李清照, 陸游, 蘇軾, 柳永, 晏幾道.

9) 대부분의 선집에서 이 시를 아내에게 보낸 사랑시로 선록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이 시가 大中 7년(853) 이상은이 東川節度使 막부에 머물 때 지인에게 보낸 것이라는 설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7종의 선집에서 모두 명편으로 선정한 작품은 2편으로, 역시 당나라 시인인 두보와 이상은의 <달밤 月夜>과 <무제 無題>이다. 이 두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고전시 최고의 사랑시 명편으로 칭송 받는 작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살펴볼 사랑시는 두보의 <달밤>이다.

今夜鄜州月, 오늘 밤 부주에 뜬 달
 閨中只獨看. 규중에서 혼자서만 바라보고 있으리.
 遙憐小兒女, 멀리서 어린자식들을 가여워 하나니
 未解憶長安. 장안의 지아비 그리는 어미의 마음 알지 못하리라.
 香霧雲鬟濕, 향기로운 안개에 구름 같은 머리가 축축하고
 清輝玉臂寒. 맑은 달빛 아래 옥 같은 팔은 차가울 터,
 何時倚虛幌, 어느 때나 흰히 비치는 휘장에 기대어
 雙照淚痕乾. 함께 달빛 받으며 눈물 자욱 말릴까?

이 시는 당나라 천보(天寶) 15년(756),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발발한 직후에 장안(長安)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당시 두보는 장안이 함락되기 전에 가족을 부주(鄜州)로 피난시키고 장안으로 돌아오다가 반군에 붙들려 장안에 억류된 상황이었다. 두보는 이 시에서 아내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시인으로서는 이런 사실도 모를 철부지 자식들을 홀로 건사할 아내가 안쓰럽기만 하다. 그러나 난리가 언제 끝날지 모를 노릇이라 다시 만나 부부의 정을 확인할 날을 달에 기원할 뿐이다. 이 시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 부부 간의 깊은 사랑과 연민을 담았다. 시에 활용된 ‘달빛’은 멀리 떨어진 아내와 시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여 서로의 안녕을 염려하는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다. 아내가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느낄 외로움과 불안을 상상하는 시인의 모습은 부부 사랑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¹¹⁾ 요컨대 이 시는 전통적인 남녀

10) 이영주 외, 《두보 근체시 명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44

11) 陶道恕 主編, 《杜甫詩歌賞析集》, 成都: 巴蜀書社, 1993, p.89

간의 사랑을 넘어 전쟁과 피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어지는 끈끈한 유대와 상호 이해를 강조하며, 고전 사랑시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계적 사랑(relational love)¹²⁾으로 확장한다고 하겠다.

이어서 이상은의 <무제>를 감상해 보자.

相見時難別亦難, 서로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이별은 더욱 어려워라.
東風無力百花殘, 봄바람도 힘없어 온갖 꽃들도 다 시드네.
春蠶到死絲方盡, 봄누에는 죽어서야 실이 다하며
蠟炬成灰淚始乾, 촛불은 재가 되어서야 눈물 겨우 마른다고.
曉鏡但愁雲鬢改, 아침 거울에 귀밑머리 변했음을 근심할 것이며
夜吟應覺月光寒, 밤에 읊조리며 달빛이 차가움을 느끼겠지.
蓬山此去無多路, 봉래산 여기서 멀리 떨어진 길 아니니
靑鳥殷勤爲探看, 파랑새야 나를 위해 잘 알아봐 주렴.

이 시는 창작된 시점이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필자는 사랑을 잃은 여성의 비가(悲歌)로 보고자 한다.¹³⁾ 이 여성은 연인을 어렵게 만났지만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시금 어려운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랑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끝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자신을 괴롭힐 것을 예감하고 있다. 외로움 속에 늙어가며 홀로 밤을 지새울 미래가 불을 보듯 흰하기에 화자는 신선의 산인 봉래산(蓬萊山)에 사는 파랑새에게 그곳으로 떠났다고 여겨지는 연인의 근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봉래산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화자가 현실 세계에서는 더 이상 연인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겠기에 이 시의 비감이 더욱 증폭된다.

중국을 대표하는 사랑시의 명편으로 일컬어지는 위 두 편은 두 가지 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중국 사랑시의 계보(系譜)를 분명하게

12) 관계적 사랑은 인간관계 내에서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지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낭만적인 애정을 넘어 인간관계의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Harry T. Reis and Arthur Aron, Love: What Is It, Why Does It Matter, and How Does It Operat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Jan., 2008, Vol. 3, No. 1)

13) 李知芸金俊淵 譯, 《李義山詩集》(上), 고양: 學古房, 2018, p.350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사랑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바탕 위에서 부부 관계를 상징한다. 위에서 인용한 시 가운데 두보의 <달밤>이 그러하다. 중국 고전시에서 '사랑'이라는 관념은 대체로 부부 사이에 느끼는 정이며, 이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이별했을 때의 그리움을 포함한다.¹⁴⁾ 또한 중국의 사랑시는 곧잘 남녀 관계를 근원 영역으로 삼는 은유로 이해된다. 이상은의 <무제>가 그러하다. 물론 이 시를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 그 자체를 노래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겠지만, 군신(君臣) 관계나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로도 읽을 수 있다.

둘째는 '사랑'의 저변에 면면히 자리 잡고 있는 '공감'의 정감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직감하는 것"을 '공감(empathy)'이라고 정의¹⁵⁾할 때, 위에서 살펴본 시에서 중국 시인들이 상징한 공감의 매개체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테면 <달밤>에서 두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의 고단함을 헤아리며 공감을 드러낸다. 그는 부주에 있는 아내가 홀로 어린 자식들을 돌보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을 생각하며 애뜻함과 미안함을 느낀다. 아내가 느낄 고독과 염려를 달빛을 통해 상상하는 시인의 모습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넘어,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에게 보내는 공감의 마음을 표현한다.¹⁶⁾ 이 공감은 두보가 아내의 마음속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관계의 유대를 형성하는 감정이다. 한편, <무제>에서 이상은은 이별의 슬픔을 마치 촛불이 재가 되고, 봄누에가 죽어서야 실을 다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는 사랑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깊이 남아 있는 애뜻함

14) 그러나 이 말이 중국 사랑시에서 부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특히 발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교 윤리가 지배했던 중국 전통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부부 간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많은 중국 전통 시대 시인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근원을 부부애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권혁석의 <중고시기 부부애정시 연구>(《중국문학》 제58집, 2008)를 참고.

15) 김영미, <문학과 공감 능력: 심리학으로 들여다 본 문학의 사회적·교육적 가치>, 《영미문학교육》 제22집 2호, 2018, p.7

16) 陳才智, 《杜甫》, 北京: 五洲傳播出版社, 2005, p.43

과 애절함을 담고 있으며,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¹⁷⁾ 두 시 모두 먼 곳에서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시인이 활용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공감을 통한 사랑’은 두보의 <달밤>에서 ‘달’로 나타나고, 이상은의 <무제>에서 ‘파랑새’로 나타난다. ‘달’은 비교적 마음이 맞는 쌍방 간에 공감대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공통의 영역 또는 목표로 이해할 수 있고, ‘파랑새’는 현실적인 여건상 보편적인 공감의 매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는 특수한 연결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고전 사랑시의 명편은 공감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2.3 N-gram 분석

본고에서는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으로 선정한 439수를 대상으로 N-gram 분석을 진행하였다. N-gram 분석은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 집합에서 주제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N-gram 분석을 통해야만 문서 집합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1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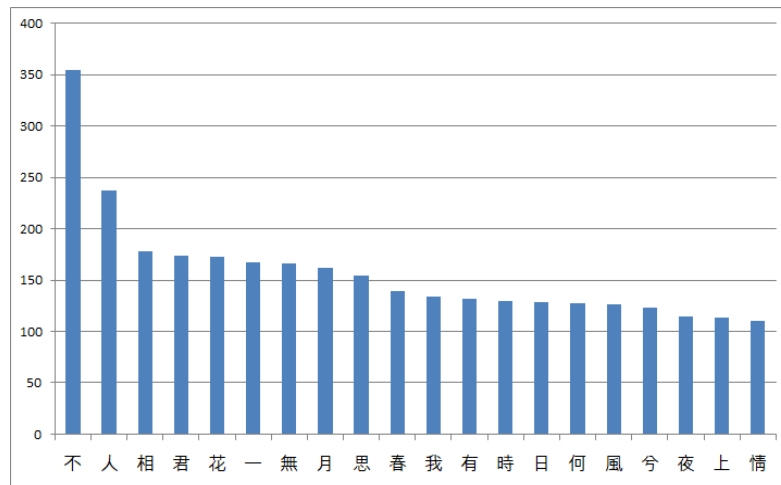
이를 위해 먼저 토큰(Token)과 N-gram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토큰은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의미소(意味素)를 가리키며, N-gram은 이 토큰이 N개 연속된 것이다.¹⁸⁾ 중국 고전시에서는 언어적 특성상 한자 한 개를 토큰으로 간주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필자는 명편 439수의 원문 텍스트를 수집한

17) 鍾來茵, 《李商隱愛情詩解》, 上海: 學林出版社, 1997, p.77

18) 박조은·송영숙,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 길벗, 2023, p.99

후, 먼저 Notepad++¹⁹⁾로 토큰화(tokenization)를 진행하고 이어서 AntConc²⁰⁾를 이용해 N-gram 분석을 진행해 한 글자씩의 유니그램(unigram)과 두 글자씩의 바이그램(bigram)을 추출하였다.

먼저 유니그램 빈도 상위 20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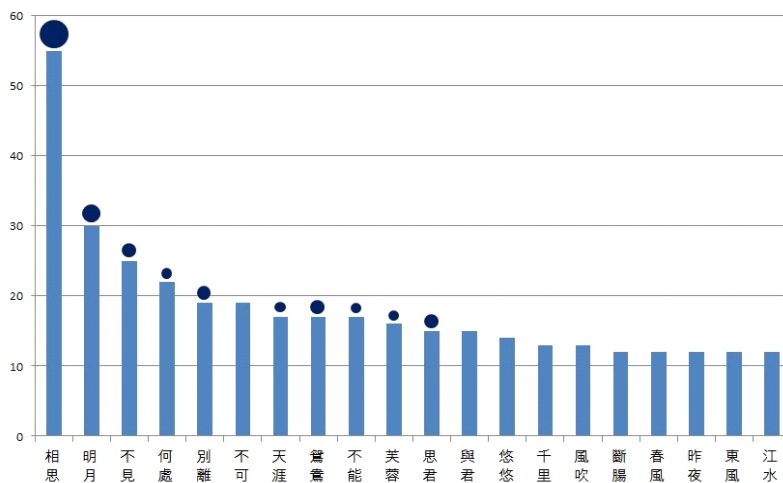
[그림 2] 유니그램 빈도 상위 20개

유니그램 빈도에서 특기할 만한 글자는 ‘相(178회)’과 ‘思(154회)’ 둘이고, 그 외는 다른 주제의 시에서도 빈도가 높은 것들이다. ‘相’은 중국 고전시에서 ‘서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인칭대명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思’는 일반적으로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우리말이나 현대중국어에서 쓰는 ‘연애(戀愛)’를 구성하는 글자인 ‘연(戀)’과 ‘애(愛)’는 각각 그 빈도가 8회와 20회에 불과하다. ‘相’과 ‘思’가 합쳐지면 바이그램인 ‘相思’가 된다. 영어로 ‘lovesickness’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말과 현대중국어에서 ‘상사병(相思病)’

19) 2003년 프랑스 출신의 Don Ho가 개발한 오픈 소스 텍스트 편집기이다.

20) 2002년 영국 출신의 Laurence Anthony가 개발한 무료 코퍼스 분석도구이다.

이러 하듯, 중국 고전시에서 ‘사랑’은 ‘相思’다.²¹⁾
 바이그램 빈도 상위 20개를 조사한 다음 결과를 보자.



[그림 3] 바이그램 빈도 상위 20개

위 그림은 사랑시 명편의 바이그램 상위 20개 막대그래프에 TF-IDF(용어 빈도-역문서 빈도)²²⁾ 지수를 반영해 막대그래프 위에 점²³⁾으로 표시했다.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相思’의 빈도와 TF-IDF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중

21) ‘相思’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시로 王維의 시가 있다. <相思>: 紅豆生南國, 春來發幾枝. 願君多采擷, 此物最相思.

22) 통계적인 의미에서 어떤 용어가 한 문서에서 주제어로 부상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그 문서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고, 둘째는 그 외의 문서에서 덜 자주 쓰이는 것이다. 전자를 용어 빈도라 하고, 후자를 역문서 빈도(Inversed Document Frequency: IDF)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한 수치를 일러 용어 빈도-역문서 빈도(TF-IDF)라 부른다.(졸고, <중국 고대의 ‘사랑’ 개념과 사랑시의 주제—先秦에서 唐代까지의 사랑시를 중심으로>《中國語文論叢》 제111집, 2022), p.318). 여기서는 편의상 <전당시>를 ‘그 외의 문서’로 삼아 바이그램 빈도를 산출했다.

23) 점의 크기가 클수록 TF-IDF 지수가 높은 것이다.

국 고전 사랑시의 주제가 ‘그리움’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明月’, ‘不見’, ‘別離’, ‘鴛鴦’, ‘思君’ 등이 이러한 대표적 주제를 보조하는 바이그램들이다. 이를 이용해 중국 고전 사랑시의 전형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을 만든다면, “이별(別離)한 그대 보이지 않기에(不見) 한 쌍의 원앙(鴛鴦)을 부러워하고 밝은 달(明月)을 바라보며 그대를 그리워한다(思君)”가 될 듯하다.²⁴⁾ 이 문장은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별과 재회의 간절함을 표현한다. ‘원앙’과 ‘밝은 달’은 자연과 사랑을 연결하는 전통적 상징으로서 사랑의 이상적 조화를 나타내고, ‘보이지 않다’와 ‘그대를 그리워하다’는 이별의 고통과 그리움의 감정을 담아낸다. 이는 중국 고전 사랑시가 인간의 내면 감정을 자연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보편적 사랑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2.3.2 토픽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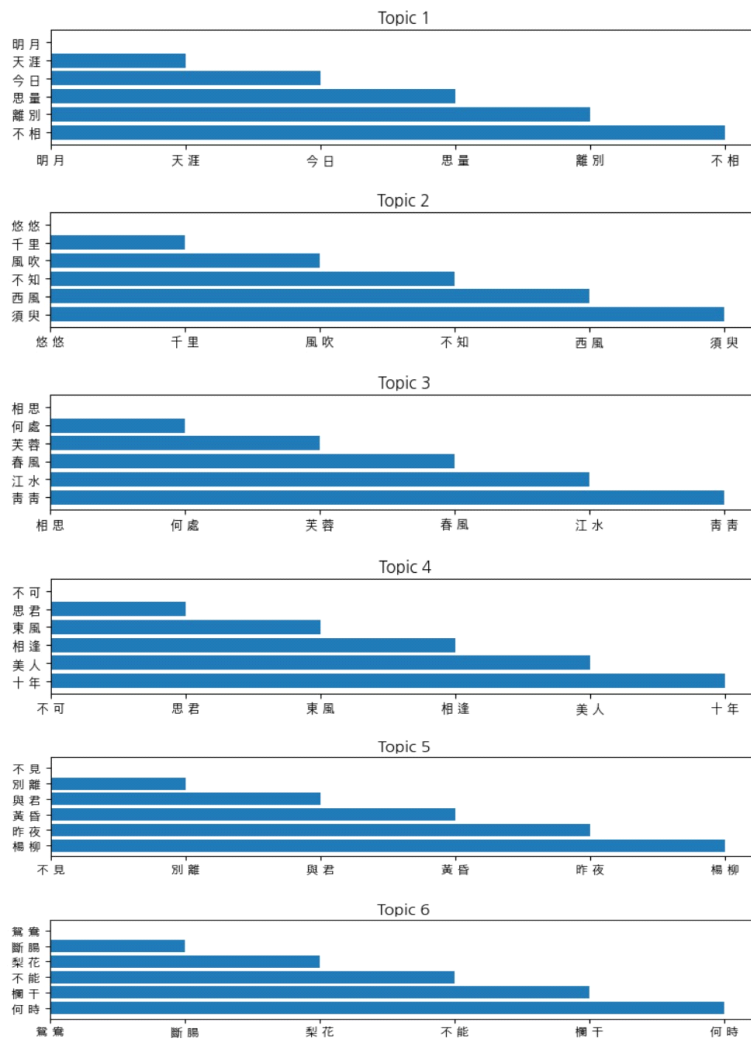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파이썬(Python) 라이브러리 가운데 하나인 싸이킷런(scikit-learn)²⁵⁾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사용해 사랑시 명편의 토픽 모델링을 수행했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의 기본 가정은 문서를 구성하는 몇 개의 토픽이 존재하며 각 토픽은 단어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²⁶⁾ 임의로 토픽의 수를 6개로 지정해 토픽

24) 필자가 서양시와의 비교를 위해 프랑스 르네상스기 시인 피에르 드 롱사르(Pierre de Ronsard)의 《카상드르에 대한 사랑시집(Les Amours de Cassandre)》(손주경 역, 파주: 아카넷, 2018)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시집에 쓰인 고빈도 시어(명사)는 ‘여인’, ‘사랑’, ‘눈(目)’, ‘꽃’, ‘이마’, ‘이성(理性)’, ‘아름다움’, ‘말(言)’, ‘이름’, ‘죽음’ 등으로 중국 고전시의 경우와 판이한 양상을 보였다.

25) 2007년 프랑스 출신의 David Cournapeau가 개발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용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이다.

26) 박상연·강주영, 《파이썬 텍스트 마이닝 완벽 가이드》, 위키북스, 2023, p.157. 본고에서는 ‘사랑시 명편 439수’와 ‘바이그램’을 각각 ‘문서’와 ‘단어’에 대응시켜 토픽 모델링 작업을 수행했다.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LDA 토픽 모델링 수행 결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도 기본적으로 바이그램의 빈도를 기준으로 군집화(群集化)를 시도²⁷⁾하는 까닭에 앞에서 살펴본 TF-IDF 모형에 나타났던 바이그램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 모형은 사용자가 지정한 6개로 개별 바이그램을 주제별로 모아준다.²⁸⁾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는 하나, 근래에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제미니(Gemini)에 잠재 디리클레 할당에서 제시한 핵심 바이그램 6개를 활용해 간단한 문장을 만든 후에 그 문장에 제목을 붙이게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제 번호	핵심 바이그램	제목	생성 문장
1	不相, 離別 思量, 今日 天涯, 明月	그리움의 정 (思念之情)	만나지 못하니 이미 이별, 오늘 하늘 끝의 밝은 달을 생각한다.(不相見已是離別, 今日思量天涯明月。)
2	須臾, 西風 不知, 風吹 千里, 悠悠	순간의 거리 (瞬間的距離)	잠깐 사이에 서풍이 불어 지나가는데, 먼 천 리 길 알 수 없네.(須臾之間, 西風吹過, 不知千里之遙。)
3	青青, 江水 春風, 芙蓉 何處, 相思	그리움의 방향 (思念的方向)	푸르른 강물,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연꽃은 피는 그리움의 정은 어디에 있나?(青青江水, 春風拂面, 芙蓉花開, 思念之情在何處?)
4	十年, 美人 相逢, 東風 思君, 不可	10년의 사랑 (十年之戀)	십 년 만에 만났는데 미인은 전과 같고, 동풍이 불어오니 그리움의 정을 억누를 수 없네.(十年相逢, 美人如故, 東風吹起, 思念之情不可抑制。)
5	楊柳, 昨夜 黃昏, 與君	이별의 괴로움 (離別之苦)	어젯밤의 황혼, 버드나무 한들거리에 그대와 이별하고 며칠을 만나지 못했던가.(昨夜黃昏, 楊柳依依, 與君

27) TfidfVectoriz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주제와 관련해 제시하는 바이그램 수가 6개인 것은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적절히 증감시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8) 하나의 주제에서 막대그래프가 길게 표현된 것이 그 주제에서 더 가중치를 부여 받은 바이그램이다. 토픽 모델링 모형이 각각의 주제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므로, 이 작업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別離, 不見		別離, 不見何日。)
6	何時, 欄干不能, 梨花斷腸, 鴛鴦	사랑의 괴로움 (相思之苦)	언제나 난간에서 볼 수 있을까? 배꽃은 떨어지고 원앙은 쌍쌍이 노는데.(何時才能在欄杆上看到, 梨花落盡, 鴛鴦成雙。)

[표 4]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6개 주제별로 생성한 문장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각 주제별 핵심 바이그램을 활용해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제목을 붙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제미나리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확률이 높은 단어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문장을 생성한다.²⁹⁾ 이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가장 그럴 듯한 말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므로, 제미나이가 제시한 제목을 토픽으로 삼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³⁰⁾ 요컨대 바이그램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이 주로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과 ‘괴로움’을 노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주제는 동서고금의 사랑시와도 크게 맥락을 달리 하지 않을 테지만, 대체로 자연물을 이용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중국 고전 사랑시만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두 수를 예로 들어 이 점을 검토해 보자.

颯颯秋風生, 소슬하게 가을바람이 일어나니
 愁人怨離別. 시름 가득한 사람은 이별을 원망하네.
 含情兩相向, 정을 품은 채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지만
 欲語氣先咽. 말하려 해도 목이 먼저 메네.
 心曲千萬端, 마음속에는 억만 갈래의 생각이 있지만
 悲來卻難說. 슬픔이 밀려와 차마 말할 수 없네.

29) 허정준, 《LLM을 활용한 실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양: 책만, 2024, p.35

30) 예를 들어 청대 朱彝尊의 장편 사랑시 〈風懷二百韻〉에서 추출할 수 있는 1993개의 바이그램에서 중국 고전 애정시 명편의 바이그램 상위 100개와 일치하는 것은 ‘佳期’, ‘佳人’, ‘同心’, ‘連理’, ‘芙蓉’, ‘不可’, ‘鴛鴦’ 등 7개이다. 제미나이가 이들 바이그램을 근거로 추정하는 주제는 ‘운명적 사랑과 이별의 애틡함’인데, 이는 〈風懷二百韻〉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別後唯所思, 이별한 뒤에는 오직 그리움뿐일 터
 天涯共明月. 하늘 끝에서 밝은 달을 함께 하겠지.
 孟郊, <古怨別>

이 시는 맹교의 악부체 시로, 위에서 살펴본 6개의 주제 가운데 첫째인 ‘그리움의 정’에 해당할 것이다. 수련에서는 ‘소슬한 가을바람’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설정한 가운데 이별로 인한 고독과 원망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한편에서 이러한 시상을 이어받아 이별 직전의 정서적 고통을 생생히 묘사했고, 경련에서 사랑의 복잡한 내면을 형상화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 고전 사랑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애달픔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미련은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공간적 거리와 이별의 고통을 초월하고자 하는 보편적 정서를 대변한다.³¹⁾ ‘밝은 달’이 이별을 초월해 사랑하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은 중국 고전 사랑시의 전형적인 클리셰(cliché) 가운데 하나이다.

이어서 위장(韋莊)의 시를 보자.

鳳去鸞歸不可尋, 봉황이 떠난 뒤라 난새가 돌아와서도 찾을 수 없고
 十洲仙路彩雲深. 십주의 선계 길에는 채색 구름이 깊어가네.
 若無少女花應老, 젊은 여인이 없었다면 꽃도 시들었을 터
 爲有嫦娥月易沈. 항아가 있기에 달마저 쉽게 잠기는구나.
 竹葉豈能消積恨, 죽엽주로 어찌 쌓인 한을 풀 수 있으랴
 丁香空解結同心. 정향꽃은 동심결만 헛되이 맺을 뿐인 것을.
 湘江水闊蒼梧遠, 상강의 물은 넓고 창오산은 멀기만 한데
 何處相思弄舜琴. 어디서 그리움 품고 순임금의 금을 타는가?
 韋莊, <悼亡姬 三首> 첫째 수

하승도(夏承燾)의 《위단기연보(韋端己年譜)》에 따르면 이 시는 894년 위장이 갖 과거에 급제했을 때 창작한 것³²⁾으로, 위에서 살펴본 6개의 주제 가

31) 張丹, <論孟郊愛情題材詩歌的特點>, 《文學教育》, 2009年 第8期, p.71

32) 陳貽焮 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卷4, p.126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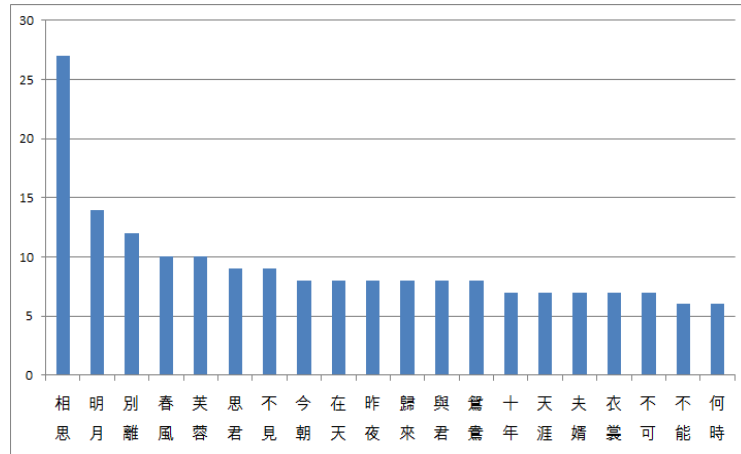
운데 셋째인 ‘그리움의 방향’에 해당할 것이다. 시인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애첩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시에 담았다. 함련을 보건대 이 애첩은 대단히 다정 다감한 여인으로서 소녀 시절부터 시인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불행히도 일찍 죽었기에 시인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주체할 수 없다. 미련에 묘사된 ‘상강’과 ‘창오산’은 애첩과의 거리를 나타내며, 그녀의 금연주를 다시 듣고 싶은 시인의 간절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시 또한 자연물을 통해 그리움 정서를 깊이 전달하는 중국 고전 사랑시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3.3 아속(雅俗)의 구분

중국 고전시는 아속을 기준으로 삼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아문학(雅文學)이 엘리트 문학을 추구하면서 주로 문인 계층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냈다면, 속문학(俗文學)은 대중문학을 추구하면서 주로 서민 계층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은 아니나, 중국 고전 사랑시도 이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자연물을 활용해 사랑은 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문인 계층의 고상한 정서를 담아내는 경향의 아문학 사랑시와 일상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서민들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의 속문학 사랑시가 각기 중국 고전 사랑시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악부시(樂府詩)와 사곡(詞曲)을 속문학에 포함시켜, 아문학 사랑시와 속문학 사랑시의 바 이그램을 비교해 검토하고자 한다.³⁴⁾

33) 木齋·祖秋陽, <論韋莊入蜀前後的詞體寫作>,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年 3月, p.76

34)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랑시 명편 439수 가운데 248수를 아문학으로, 나머지를 191수를 속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 아문학 사랑시 바이그램 상위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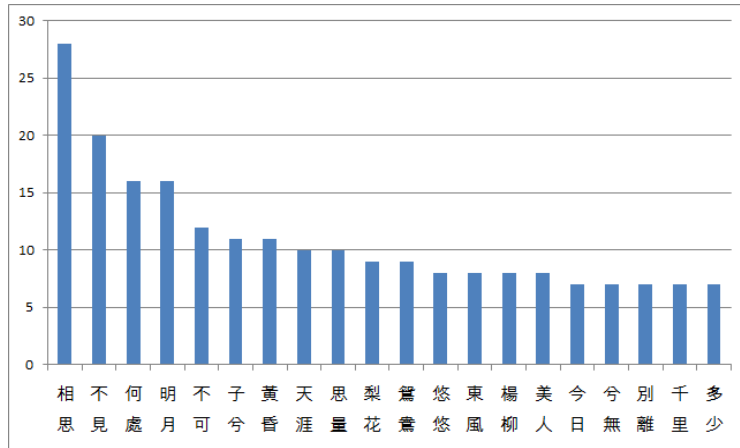
아문학 사랑시의 상위 20개 바이그램과 위에서 살펴본 전체 바이그램의 TF-IDF를 비교해 보면, ‘別離’, ‘春風’, ‘芙蓉’, ‘今朝’, ‘在天’, ‘昨夜’ 등의 순위가 상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젯밤(昨夜)’에서 ‘오늘 아침(今朝)’으로의 시간적 전개를 보아, 주로 하룻밤 사이에 ‘이별(別離)’이 진행되는 상황을 묘사한 시편이 주류를 이루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문학 사랑시 작품으로 李商隱의 <무제 2수> 첫째 수를 예로 든다.

昨夜星辰昨夜風, 어젯밤 별 어젯밤 바람
 畫樓西畔桂堂東. 단청 누각의 서쪽 계수나무 집 동쪽.
 身無彩鳳雙飛翼, 몸엔 채색 봉황처럼 한 쌍의 날개 없어도
 心有靈犀一點通. 마음엔 영험한 무소같이 한 점으로 통함이 있었지.
 隔座送鉤春酒暖, 자리를 나눠 했던 고리 감추기 놀이에 봄 술 따뜻하고
 分曹射覆蠟燈紅. 편을 갈라 했던 석부 놀이에 촛불 등이 빨갛지.
 嗟余聽鼓應官去, 아 나는 북소리 듣고 출근하러 떠나니
 走馬蘭臺類斷蓬. 말 달려 난대로 가는 모습 끊어진 쭉과 같구나.

이 시는 회창(會昌) 2년 비서성(秘書省)에서 일할 때 귀족의 연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³⁵⁾ 이 시는 ‘어젯밤(昨夜)’에서 시작하여 하룻밤 사이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별’과 ‘바람’을 통해 순식간에 흘러간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인의 추억과 아쉬움을 암시했다. 함련은 물리적 한계에 굴하지 않겠다는 정신적 교감을 강조하는데, 이는 아문학 사랑시의 특징인 고상한 정서와 은유적 표현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경련에서는 고리 감추기와 석부 놀이 등으로 보냈던 하룻밤의 즐거움을 회상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정을 나누었지 ‘자리를 나누고 편을 가른’ 자리였기에 느꼈던 아쉬움을 진하게 드러냈다. 미련에서는 북소리를 듣고 떠나야 하는 시인의 상황을 표출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지었다. 삭이 끊어진 듯 흩어지는 모습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이별을 암시하면서 시인의 슬픔을 표현했다. 요컨대 이 시는 하룻밤 사이의 사랑과 이별을 우아하고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가운데 아문학 사랑시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드러냈다고 할 만하다.

이어서 속문학 사랑시 바이그림 상위 20개의 양상을 살펴보자.

35) 劉學鍇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北京:中華書局, 2004, p.440



[그림 6] 속문학 사랑시 바이그램 상위 20개

속문학 사랑시는 아문학의 경우와 달리, ‘不見’, ‘何處’, ‘不可’, ‘子兮’, ‘黃昏’, ‘天涯’, ‘思量’, ‘梨花’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만나지 못하다(不見)’와 ‘할 수 없다(不可)’ 모두 부정적 표현이고, ‘何處’와 ‘天涯’는 멀리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되었음을 암시한다. ‘해저물녘(黃昏)’은 독수공방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으로, 아문학 사랑시의 ‘오늘 아침’ 또는 ‘어젯밤’이 풍기는 이미지와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아문학 사랑시의 ‘연꽃(芙蓉)’이 중의적으로 ‘(남성) 연인의 얼굴’을 의미한다면, 속문학 사랑시의 ‘배꽃(梨花)’은 봄, 즉 청춘이 사라짐을 상징³⁶⁾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아문학 사랑시에 비해 속문학 사랑시의 정조가 더 침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양수(歐陽修)의 사 한 수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작년 정월 보름날 밤에는 꽃시장의 등불이 대낮처럼 밝았지. 달이 버드

36) 唐 劉方平의 <春怨> 시에 “쓸쓸한 빈 뜰에 봄이 저물어 가는데, 배꽃이 땅에 가득해도 문을 열지 않는다.(寂寞空庭春欲晚, 梨花滿地不開門.)”고 한 것처럼, 배꽃은 봄(=청춘)의 끝을 알리는 전령 노릇을 한다.

나무 가지 끝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황혼 이후를 기억했지.
 올해 정월 보름날 밤에는 달과 등불이 예전과 다를 바 없네. 작년 그 사
 람 보이지 않아 봄옷 소매에 눈물이 가득하네.
 去年元夜時. 花市燈如畫. 月到柳梢頭. 人約黃昏後.
 今年元夜時. 月與燈依舊. 不見去年人. 淚滿春衫袖.
 歐陽修, <生查子>

구양수의 이 사는 작년과 올해 정월 보름날 등 축제에서의 달라진 상황 비
 교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³⁷⁾ 전체적으로 ‘침울한 정조’의 바탕 위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다. 전결에서는 ‘꽃시장’과 ‘등불’,
 그리고 달빛 아래 약속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과거의 행복을 재현한다. 그러나
 후결에 묘사된 ‘올해 정월 보름날’은 작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지만 ‘그 사
 람’의 부재로 인해 사인의 감정이 급격히 침울해진다. 특히 마지막 구절은 화
 자의 애절한 그리움과 회한을 구체화한다.³⁸⁾ 아문학 사랑시인 이상은의 <무
 제>가 어제와 오늘의 단절감을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면, 속문학
 사랑시인 구양수의 <생사자>는 구체적인 묘사 속에서 시인의 슬픔이 보다 직
 접적으로 전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⁹⁾

2.3.4 시기별 구분

중국 고전시는 창작 역정이 유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진(先秦)의
 《시경(詩經)》 시부터 청대(清代) 시까지의 역사적 시기는 무려 3천 년에 달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 부단히 일어나는 상황에

37) 劉揚忠 主編, 《唐宋名篇(唐宋詞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3, p.820

38) 홍병혜 역, 《구양수 사선》,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21, p.20.

39) 이러한 속문학 사랑시의 특징은 주기평의 연구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다. 주기평은 <南
 朝 民間樂府에 나타난 고대 중국 민간의 사랑-吳聲歌曲을 중심으로>(《중국문학》 제
 102집, 2020)에서 남조 민간악부의 여성 화자는 아문학 사랑시에서의 달리 감정 표현
 의 수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서 ‘사랑’ 관념만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 기간을 9개의 시기로 세분하여 빈도 상위 바이그램 5개를 상호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⁴⁰⁾

선진	양한	위진	남북조	당오대	송대	금원대	명대	청대
子兮	與君	佳人	西洲	相思	相思	相思	分離	相思
不可	思君	念君	何處	明月	鴛鴦	梨花	天涯	消息
不見	所思	棄捐	明月	芙蓉	何處	何處	相思	須臾
兮無	新人	莫以	春風	不見	千里	啼痕	要分	天涯
我思	相思	不能	蓮子	何處	黃昏	思量	佳期	衣裳

[표 5] 9개 시기별 바이그램 빈도 상위 5개

위 표를 보면, 중국 고전 사랑시를 대표하는 ‘相思’가 당·오대(唐·五代) 이후로 꾸준히 최상위권에 포진한 것을 제외하고 각 시대별로 얼마간 다른 바이그램들이 명멸(明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相思’ 외에 ‘何處’가 남북조 이후로 금원대까지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明月’은 남북조와 당오대에 특히 애용되었다. 사랑시에 자주 쓰인 동식물 소재가 ‘蓮子’(남북조), ‘芙蓉’(당오대), ‘鴛鴦’(송대), ‘梨花’ 등으로 변천되어 간 점도 흥미롭다. ‘蓮子’와 ‘芙蓉’이 각각 ‘憐子’(그대를 그리워하다)와 ‘夫容’(지아비의 얼굴)과 해음(諧音) 관계를 이루어 언어적 수사 기교에 중점을 두었다면, ‘鴛鴦’과 ‘梨花’는 보다 현실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로 옮겨온 결과라 하겠다. 요컨대, 당오대 시기에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사랑시의 기초가 후대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0) 이 표는 선정된 명편 439수에 한정해 역사 시기를 구분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2.3.5 코사인 유사도 분석

시학 연구에서 어느 시기의 시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유사도 분석이 유력하게 제시된다.⁴¹⁾ 바이그램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하면 반복적 주제나 감정 표현의 패턴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9개의 시기에서 명편으로 선정된 시편에서 추출한 바이그램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⁴²⁾

	선진	양한	위진	남북조	당·오대	송대	금원대	명대
양한	264							
위진	104	444						
남북조	189	392	205					
당·오대	235	630	283	761				
송대	37	318	191	335	976			
금원대	24	204	83	246	626	672		
명대	47	232	148	190	615	654	493	
청대	37	249	168	216	652	540	307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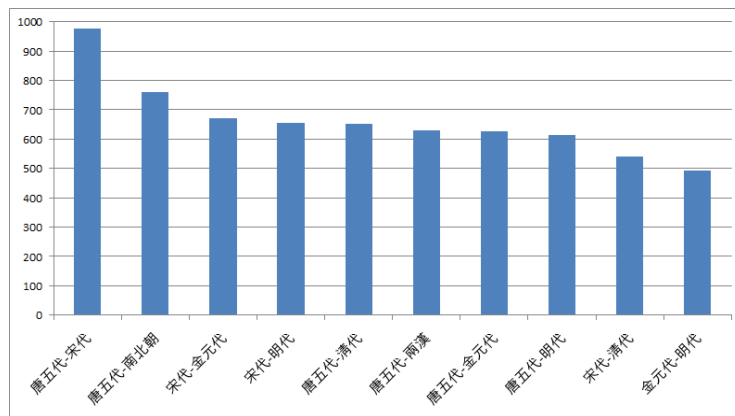
[표 6] 9개 시기별 바이그램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가 클수록 두 문서 간에 유사도가 높다는 뜻이다. 위 표의 수치를 보면 당·오대와 송대 사랑시의 유사도가 '976'으로 가장 높고 선진과 금

41) 유사도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인 코사인 유사도 분석은 작품 간의 어휘적, 주제적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코사인 유사도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이병찬의 <한시 유사도 분석 방안 연구>(《漢文學論集》 59호, 2021)를 참고. 본고에서는 싸이킷런에서 제공하는 'cosine_similarity'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42) 표에 제시된 수치는 편의상 본래의 유사도에 10,000을 곱한 값으로, 예를 들어 '264'는 본래 유사도가 '0.0264'로 나타난다.

원대 사랑시의 유사도가 '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도가 높은 구간 상위 10개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7] 9개 시기 간 코사인 유사도 상위 10개

비교 축에 당오대가 포함된 경우, 대체로 유사도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명편 선집에서 당오대 사랑시가 다수 선정된 사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당오대 사랑시는 문학적 완성도와 함께 주요 주제 면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아 많은 선집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오대 사랑시가 전후 시기와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면 아무리 많은 작품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사도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중국 사랑시의 전통적 주제가 당오대 시기에 이르러 상당히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된다. 당오대 사랑시는 이전 시기(남북조, 양한)의 사랑시에서 다른 주제를 충분히 계승하고 흡수했을 뿐 아니라, 이후 시기(송대~청대)의 사랑시에서 주제 형성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어

이상에서 필자는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 439수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이 439수는 7종의 중국 고전 사랑시 선집 가운데 2종 이상에 수록된 작품을 집계한 결과이다. 명편은 당송대(唐宋代)에 창작된 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상은, 주숙진, 이백, 백거이 등이 대표적인 사랑시인으로 나타났다. 두보(杜甫)의 <달밤 月夜>과 이상은(李商隱)의 <무제 無題>는 7종에 모두 수록되어 중국 고전시 최고의 명편으로 칭송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작품은 중국 사랑시의 계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필자는 명편 439수를 대상으로 N-gram 분석을 진행했다.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빈도 분석을 통해 중국 고전시에서 사랑은 ‘相思’라는 바이그램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밝혔다. 바이그램을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중국의 사랑시 명편이 주로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과 ‘괴로움’을 노래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랑시 명편을 아속(雅俗)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문학 사랑시에 비해 속문학 사랑시의 정조가 더 침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시 명편의 상위 바이그램 5개를 기준으로 9개 역사 시기를 살펴보면, 당오대 시기에 중국 고전 사랑시의 계보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된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통해 중국 고전 사랑시의 대표적 또는 전형적 면모가 얼마간 드러나지 않았나 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현대 사랑시나 다른 언어권의 사랑시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중국 고전 사랑시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 박상언·강주영, 《파이썬 텍스트 마이닝 완벽 가이드》, 위키북스, 2023.
- 박조은·송영숙,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 길벗, 2023.
- 손주경 역, 《카상드르에 대한 사랑시집》, 파주: 아카넷, 2018.
- 이영주 외, 《두보 근체시 명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이지운, 《전통시기 중국문인의 애정 표현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李知芸·金俊淵 譯, 《李義山詩集》(上), 고양: 學古房, 2018.
- 허정준, 《LLM을 활용한 실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양: 책만, 2024.
- 홍병혜 역, 《구양수 사선》,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 陶道恕 主編, 《杜甫詩歌賞析集》, 成都: 巴蜀書社, 1993.
- 劉揚忠 主編, 《唐宋名篇(唐宋詞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3.
- 劉學鍇·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4.
- 鍾來茵, 《李商隱愛情詩解》, 上海: 學林出版社, 1997.
- 陳貽焮 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陳才智, 《杜甫》, 北京: 五洲傳播出版社, 2005.
- Martin Paul Eve, *The Digital Humanities and Literary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 졸 고,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 《중국문학》 제 106집, 2021.
- _____, <중국 고대의 '사랑' 개념과 사랑시의 주제—先秦에서 唐代까지의 사랑시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제111집, 2022.
- 권혁석, <중고시기 부부애정시 연구>, 《중국문학》 제58집, 2008.
- 김영미, <문학과 공감 능력: 심리학으로 들여다 본 문학의 사회적·교육적 가치>, 《영미문학교육》 제22집 2호, 2018.
- 김하늬, <朱彝尊 애정시 <風懷二百韻> 고찰>, 《중국문학》 제83집, 2015.
- 배경진, <艷情詩와 晚唐 艷情詩의 여성형상 -혼용된 체제 속에서의 문학적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제84집, 2024.

- 서연주,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 《중국학보》 제98집, 2021.
- 이병찬, <한시 유사도 분석 방안 연구>, 《漢文學論集》 59호, 2021.
- 주기평, <南朝 民間樂府에 나타난 고대 중국 민간의 사랑-吳聲歌曲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102집, 2020.
- 木 齋·祖秋陽, <論韋莊入蜀前後的詞體寫作>,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年 3月.
- 張 丹, <論孟郊愛情題材詩歌的特點>, 《文學教育》, 2009年 第8期.
- Harry T. Reis and Arthur Aron, Love: What Is It, Why Does It Matter, and How Does It Operat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Jan., 2008, Vol. 3, No. 1

Abstract

A Digital Humanities Approach to Masterpieces of Classical Chinese Love Poetry

Kim, Joon Youn

This study analyzes 439 masterpieces of classical Chinese love poetry using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ies. The selected poems were compiled from seven anthologies, focusing on those included in at least two collections. Most masterpieces originated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ies, with poets such as Li Shangyin, Zhu Shuzhen, Li Bai, and Bai Juyi identified as prominent contributors. Notably, Du Fu's *Moonlit Night* and Li Shangyin's *Untitled* were featured in all seven anthologies, underscoring their status as exemplary works that highlight the genealogy of Chinese love poetry.

An N-gram analysis, including unigram and bigram frequency analysis, revealed that love is frequently expressed through the bigram '相思(mutual longing)'. Topic modeling based on bigrams demonstrated that classical Chinese love poetry explores themes of longing and suffering. A comparison of refined and vernacular styles indicated that vernacular love poetry exhibited a more melancholic tone than its refined counterparts. Additionally,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genre, as observed through the top five bigrams across nine historical periods, confirmed that the genealogy of classical Chinese love poetry was established during the Tang and Five Dynasties. These findings were corroborated by cosine similarity analysis, providing robust evidence for the study's conclusions.

Key words : Classical Chinese Love Poetry, Tang and Song Dynasties, Digital Humanities, N-gram Analysis, Topic Modeling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

【부록】 중국 고전 사랑시 명편 439수 일람

시대	작자	시제	시대	작자	시제
先秦	詩經·唐風	葛生	漢代	司馬相如	琴歌
		綱繆		室思 1(深陰)	
	詩經·召南	標有梅		徐幹	室思 2(峨峨)
		野有死麕			室思 3(浮雲)
	詩經·王風	采葛			室思 4(慘慘)
		君子于役			室思 5(思君)
	詩經·邶風	柏舟			室思 6(人靡)
		木瓜			於清河見...與妻別詩
	詩經·衛風	伯兮		徐淑	答秦嘉詩
		氓		張衡	同聲歌
	詩經·鄭風	出其東門		秦嘉	贈婦詩3首 1(人生)
		將仲子		卓文君	白頭吟
		女曰雞鳴		미상	上邪
		野有蔓草			有所思
		褰裳		豔歌何嘗行	
		山有扶蘇		班婕妤	怨歌行
		溱洧		미상	上山採蘼蕪
		子衿		潘岳	悼亡詩 1(荏苒)
詩經·齊風	東方之日	傅玄	車遙遙篇		
詩經·周南	關雎	楊方	合歡詩5首 1(虎嘯)		
	卷耳	阮籍	詠懷詩82首 19(西方)		
漢廣	張華	情詩5首 5(遊目)			
詩經·秦風	蒹葭	曹丕	燕歌行2首 1(秋風)		
詩經·邶風	靜女	曹植	七哀詩		
	綠衣		雜詩 3(西北)		
屈原	山鬼	美女篇			
漢代	미상	涉江采芙蓉	曹操	塘上行	
		迢迢牽牛星	江淹	古離別(遠與)	
		青青河畔草	江總	閨怨篇 1(寂寂)	
		行行重行行	范雲	送別詩(東風)	
		留別妻	謝靈運	東陽溪中贈答詩2首 1	
		庭中有奇樹	謝朓	同王主簿有所思	
		明月何皎皎		王孫遊	
		冉冉孤生竹	徐陵	長相思2首 2	
		客從遠方來		關山月2首 1	
		古詩爲焦仲卿妻作	孫綽	碧玉歌 1	
		穆穆清風至		情人碧玉歌2首 2	
		蘭若生春陽	沈約	悼亡詩(去秋)	

시대	작자	시제	시대	작자	시제
六朝	鮑令暉	古意贈今人	唐五代	杜甫	新婚別
	鮑照	擬行路難 3(璇閨)		杜甫	搗衣
	미상	子夜歌42首 03(宿昔)		杜荀鶴	春宮怨
		子夜四時歌75首 春歌 10		梁鍇	代征人妻喜夫還
		折楊柳歌辭5曲 2(腹中)		劉采春	囉唳曲6首 1(不喜)
		華山畿25首 01			囉唳曲6首 3(莫作)
		讀曲歌89首 28(憐歡)		柳氏	荅韓翃
		讀曲歌89首 55(打殺)		劉禹錫	和樂天春詞(新妝)
		子夜四時歌75首 冬歌 01			踏歌行(春江)
		蘇小小歌(姜乘)		劉媛	長門怨3首 1(雨滴)
		碧玉歌 2(碧玉)		李端	閨情(月落)
		作蠶絲 2(春蠶)			拜新月
		子夜歌42首 07(夜長)		李白	聽箏
		子夜歌42首 19(歡愁)			春思(燕草)
		子夜四時歌75首 夏歌 08			長干行(妾髮)
		西平樂(我情)			長相思 1(日色)
		拔蒲 2(朝發)			長相思 2(長相)
		子夜歌42首 33(始欲)			子夜吳歌 秋歌(長安)
		子夜歌42首 35(我念)			楊叛兒(君歌)
		石城樂 5(聞歡)			怨情(美人)
飲馬長城窟行	玉階怨(玉階)				
西洲曲(憶梅)	無題(相見)				
王德	春詞(春花)	夜雨寄內			
隋代	蘇蟬翼	因故人歸作	無題二首 1(昨夜)		
	張碧蘭	寄阮郎	無題四首 1(來是)		
	陳少女	寄夫	姮娥		
唐五代	葛鴉兒	懷良人	無題四首 2(颯颯)		
	江采蘋	謝賜珍珠	無題二首 2(重帷)		
	開元宮人	袍中詩	春雨		
	顧況	宮詞(長樂)	無題二首 1(鳳尾)		
	權德輿	玉臺體12首 11(昨夜)	板橋曉別		
		玉臺體12首 12(萬里)	李冶	明月夜留別	
	金昌緒	春怨	李益	寫情	
	盧仝	有所思(當時)		江南曲(嫁得)	
	戴叔倫	相思曲	李賀	大堤曲(妾家)	
	杜牧	贈別2首 2(多情)		胡蝶飛	
		秋夕		三月過行宮	
	杜甫	月夜		後園鑿井歌	

시대	작자	시제	시대	작자	시제	
唐 五代	孟郊	古怨別(颯颯)	唐 五代	李冶	相思怨	
		怨詩(盧家)		岑參	夜過盤石…效齊梁體	
		結愛(心心)		張九齡	賦得自君之出矣	
		古別離(欲別)			望月懷遠	
	武則天	如意娘		張氏	寄夫 2(驛使)	
	文茂	春日寄晁采		張安石	苦別	
	미상	雜詩(兩心)		張若虛	春江花月夜	
	白居易	裴誠		南歌子詞3首 2(不信)	張窈窕	春思2首 1(門前)
					長恨歌	張籍
				感情	張潮	思遠人
				贈內1(生爲)		江南行
	贈內2(漠漠)	張仲素		春閨思		
	徐月英			敘懷	燕子樓詩3首 1(樓上)	
				送人	燕子樓詩3首 2(北邙)	
	薛濤			贈遠2首 1(芙蓉)	燕子樓詩3首 3(適看)	
	薛璠	返俗謠(化雲)		張泌	寄人 1(別夢)	
	薛媛	寫真寄夫		張祜	宮詞2首 1(故國)	
	施肩吾	望夫詞(手熱)		儲光羲	雜詠5首 釣魚灣	
	沈佺期	獨不見		晁采	秋日再寄文茂	
		雜詩3首 3(聞道)		朱絳	春女怨	
	魚玄機	江陵愁望寄子安		朱慶餘	近試上張籍水部	
		贈鄰女		秦韜玉	貧女	
		閨怨		陳玉蘭	寄夫	
	溫庭筠	瑤瑟怨		天寶宮人	又題洛苑梧葉上	
	王建	望夫石		崔郊	贈去婢	
	王勃	江南弄		崔氏	述懷	
	王涯	秋思贈遠2首 1(當年)		崔仲容	贈所思	
	王維	相思(紅豆)		崔護	題城南莊	
		息夫人		崔顥	長干曲1(君家)	
	王昌齡	閨怨			長干曲2(家臨)	
		遣悲懷 1(謝公)			長干曲3(下渚)	
		遣悲懷 2(昔日)		沈如筠	閨怨2首 1(雁盡)	
遣悲懷 3(閑坐)		太原妓	寄歐陽詹			
元稹	離思5首 4	韓翃	章臺柳			
	答張生	韓氏	題紅葉			
	六年春遣懷8首 5	韓偓	復偶見三絕 2(桃花)			
韋應物	出還	韓愈	青青水中蒲3首 1			
韋莊	悼亡姬		青青水中蒲3首 2			

시대	작자	시제	시대	작자	시제
唐 五代	韓愈	青青水中蒲3首 3	宋 代	劉兼	江樓望鄉寄內子
	皇甫松	採蓮子2首 2(船動)		劉克莊	石塘感舊十絕 3(沈郎)
	皇甫冉	春思		陸游	沈園2首 1(城上)
	郭元振	春江曲(江水)			沈園2首 2(夢斷)
	劉禹錫	竹枝詞1(楊柳)			十二月二日夜…2首 1
		竹枝詞2(山桃)		十二月二日夜…2首 2	
	白居易	採蓮曲(菱葉)		李清照	偶成
		長相思(九月)		林景熙	商婦吟
		浪淘沙(借問)		梅堯臣	悼亡3首 1(結髮)
		長相思(汴水)			悼亡3首 2(每出)
	王昌齡	采蓮曲2首 3(越女)			懷悲
	于鵠	江南曲(偶向)		謝氏	送外
	儲光羲	江南曲4首 3(日暮)		徐鉉	夢遊3首 1(魂夢)
	崔國輔	采蓮曲(玉漱)		蘇軾	悼朝雲
	顧夐	訴衷情 2(永夜)		晏殊	寓意
	李珣	南鄉子 10(相見)		葉茵	香奩體5首 3(千里)
	李煜	菩薩蠻 1(花明)		王山	憶盈盈題玉女池2首 1
	溫庭筠	憶江南(梳洗)		王十朋	悼亡 3(偕老)
		更漏子(玉爐)		王安石	君難托
		更漏子(柳絲)		張耒	偶題2首 2(春水)
		南歌子 1(手裏)		朱淑真	元夜3首 3(火燭)
	牛嶠	望江怨(東風)			秋夜2首 1(夜久)
	牛希濟	生查子 1(春山)			落花
		生查子 2(新月)			寄情
	韋莊	女冠子 2(昨夜)			恨春5首 2(一瞬)
		思帝鄉 2(春日)		愁懷2首 1(鷓鴣)	
		女冠子 1(四月)		詹茂光 妻	寄遠
		荷葉杯 2(記得)		何應龍	採蓮曲(採蓮)
馮延巳	思帝鄉(雲鬢)	夏之中	古離別(郎上)		
	調金門 3(風乍)	韓駒	十絕爲亞卿作 5(君住)		
蝶戀花 4(幾日)	十絕爲亞卿作 8(妾願)				
和凝	江城子 2(竹裏)	黃氏女	贈潘用中		
	江城子 3(斗轉)	姜夔	踏莎行(燕燕)		
이상	望江南(天上)	歐陽修	生查子(去年)		
	菩薩蠻(枕前)		蝶戀花(庭院)		
宋 代	郭暉 妻	南歌子(鳳髻)			
	寇準	踏莎行(春色)			
	戴復古	寄興 2(黃金)	唐婉	釵頭鳳(世情)	

시대	작자	시제	시대	작자	시제	
宋代	戴復古 妻	祝英臺近(惜多)	宋代	朱淑眞	清平樂 夏日遊湖 謁金門 1(春已)	
	呂本中	采桑子 1(恨君)		周紫芝	鷓鴣天 7(一點)	
	柳永	雨霖鈴(寒蟬)		秦觀	鵲橋仙(纖雲)	
		蝶戀花 2(佇倚)			滿庭芳(山抹)	
		定風波慢(自春)			陳東甫	長相思(花深)
		八聲甘州(對瀟)			賀鑄	鷓鴣天(重過) 青玉案 橫塘路
	陸游	釵頭鳳(紅酥)		黃庭堅	少年心 1(對景)	
	李重元	憶王孫 1 春詞(萋萋)		秦略	悼亡(自古)	
	李之儀	卜算子(我住)		劉迎	烏夜啼 2(離恨) 錦堂春(牆角)	
	李清照	一剪梅(紅藕)			李晏	菩薩蠻 回文(斷腸)
		醉花陰(薄霧)	王特起	喜遷鶯 別內(東樓)		
		點絳脣(蹴龍)	袁宏道	妾薄命		
		鳳凰臺上憶吹簫(香冷)	貫雲石	紅繡鞋(揆著)		
	孤雁兒(藤床)	喬吉	水仙子(眼前)			
	相思令(吳山)	呂止庵	後庭花(西風)			
	林逋	憶秦娥 4(樓陰)	盧摯	落梅風(才歡)		
	范成大	憶秦娥 4(樓陰)	劉燕哥	太常引 饒齋參議…		
	范仲淹	御街行 秋日懷舊(紛紛)	劉庭信	折桂令(想人)		
	史達祖	雙雙燕 詠燕(過春)	徐再思	沈醉東風(一自) 折桂令(平生)		
	聶勝瓊	鷓鴣天 寄李之問		清江引(相思)		
	蘇軾	江城子 乙卯正月…	楊果	小桃紅(采蓮)		
		蝶戀花 春景(花褪)	王實甫	十二月過堯民歌爲別情		
		水龍吟(似花)	姚燧	憑欄人(欲寄) 憑欄人(兩處)		
		少年遊 潤州作…		張翥	菩薩蠻(郎情)	
	辛棄疾	青玉案 元夕(東風)	鄭光祖	蟾宮曲(半窗)		
	晏幾道	臨江仙 7(夢後)	屈安人	送夫入覲		
		鷓鴣天 1(彩袖)	唐寅	題拈花微笑圖		
		思遠人(紅葉)	劉基	吳歌 1(儂做) 吳歌 2(承郎)		
	阮郎歸 3(舊香)	劉績		征夫詞		
	晏殊	蝶戀花(檻菊)	李夢陽	子夜四時歌 1(共歡)		
	吳文英	唐多令 惜別(何處)	林鴻	挽紅橋		
	魏夫人	菩薩蠻 1(溪山)	謝榛	遠別曲		
張先	一叢花令(傷高)					
張幼謙	一剪梅(同年)					
蔣捷	霜天曉角(人影)					
周邦彥	蝶戀花 商調秋思(月皎)					
	少年遊 商調(並刀)					
朱淑眞	江城子 賞春(斜風)					

시대	작자	시제	시대	작자	시제
明代	謝榛	搗衣曲	清代	吳嘉紀	內人生日
	商景蘭	悼亡		賦得對鏡贈汪琨... 2	
	宋濂	越歌8首 2(戀郎)		古意(歡似)	
	王叔承	竹枝詞12首 1(月出)		琴河感舊 3(休將)	
	周在	閨怨		追悼	
	陳子龍	中秋風雨懷人		王夫之	悼亡4首 1(十年)
	黃娥	寄夫		袁枚	古意 1(妾自)
	高濂	西江月 1 題情		錢謙益	秦淮花燭詞4首 2(寶鏡)
	唐寅	一剪梅(雨打)		鄭燮	貧士
	林鴻	念奴嬌 留別(鍾情)		沈樹榮	送別
	文徵明	滿江紅(漠漠)		黃景仁	別意
	史鑑	解連環 送別(銷魂)		綺懷 16(露檻)	
	楊慎	浪淘沙(春夢)		秋夕	
	張倩倩	蝶戀花(漠漠)		黃遵憲	今別離 2(朝寄)
	張紅橋	念奴嬌(鳳凰)		山歌 2(人人)	
	周恭	長相思(阻佳)		王鵬運	南鄉子(斜月)
	沈仕	懶畫眉(東風)		蔣士銓	水調歌頭 舟次感成
	夏完淳	卜算子 斷腸(秋色)		朱彝尊	桂殿秋(思往)
	黃娥	黃鸞兒(積雨)		高陽臺(橋影)	
	미상	分離(要分)			周之琦
甘認(乞娘)		陳廷焯	蝶戀花(細雨)		
打要(乞娘)					
噴嚏(對妝)					
偷情(結識)					
清代	顧英	初夏送夫子北上			
	龔自珍	後遊(破曉)			
		紀遊(春小)			
	屈大均	從塞上偕內... 19(一聲)			
	董以寧	閨怨			
	梁啓超	寄內			
		台灣竹枝詞 1(韭菜)			
	盧紘	望遠曲(明知)	수록 중수별 색채 표시		
	林以寧	得夫子書	7		
	席佩蘭	夏夜示外	6		
	蘇曼殊	東居雜詩19首 4(碧欄)	5		
		本事詩10首 09(烏舍)	4		
邵宜梅	薄命詞(憶昔)	3			
楊守知	西湖竹枝詞(自翻)	2			